

코로나19로부터의 고용회복, 청년고용은 어디쯤 있나?

김 유 빈*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나라 전체가 신음했던 시기였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유지, 생계안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금 가팔라지는 등 앞으로의 상황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양상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2021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발현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100.2%에 이른 만큼 완전한 회복에 가까워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고용의 양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는 등 우려를 덜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이들은 고용의 양적 회복양상도 계층·업종별로 양극화를 보이는 등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청년 노동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 있어 청년층은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계층에 속한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4월 청년취업자(15~29세)는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감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최근에 이르러서는 취업자 및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각종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용지표와 청년체감도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의 청년층 고용충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노동리뷰 2022년 2월 특집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청년고용 회복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첫 번째 원고인 「경기침체와 청년 노동시장」은 경기침체가 대졸 청년들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추정한다.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경기침체가 존재할 경우 대졸 남성은 취업 여부, 여성은 일자리 질에 있어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kim@kli.re.kr).

부정적 영향이 관찰된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과거의 유사 경제·감염병 위기에 비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졸업한 청년층의 경력공백과 근로조건에 대한 우려가 결코 적지 않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고인 「향후 청년 일자리 변화와 대응」은 작금의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기업의 인사관리 및 노동조합 요인을 매개로 청년층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 인적자본기업패널과 사업체패널 조사,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청년고용 양태와 인사·경영관리 실태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향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였다. 플랫폼종사자 증가, 유연근무제 활용 증대 등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촉발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및 근무방식의 다양화가 향후에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본 원고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년고용 개선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방식 변화를 유도하는 데 적절한 정책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원고는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일자리센터의 고용효과 및 정책과제」이다. 대학생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정책 및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효과를 분석한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사업의 인재양성과정 개편과 기업 네트워크 구축, 대학일자리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전문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자리정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작금의 코로나 위기는 과거의 유사 고용충격과는 변화 양상과 속성에 있어 상당 부분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일자리의 재창출과 개선을 도모기 위해서는 과거와 차별적인 방식의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취약계층까지 정책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청년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 전달 면에서도 보다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KLI**